

■ (언론 동향) 2022.2.4.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이·윤·심·안 한목소리 “농업예산 대폭 늘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선택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 230만 농업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 이재명 후보 비료 관련 공약 >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이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을 통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해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및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 윤석열 후보 비료 관련 공약 >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해 드리고,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해 놔야 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대선특별취재반 >